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for the Quality of Life Among Dental Hygienists

김혜진*, 정애화**, 김지희***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Hye-Jin Kim(jinnykim4350@hanmail.net)*, Ae-Hwa Jaung(aehwa@tk.ac.kr)**,
Ji-Hee Kim(kjh3651@hanmail.net)***

요약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알아보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를 치과위생사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평균 직무 스트레스는 2.84 ± 0.60 점, 사회적 지지 3.97 ± 0.52 점, 삶의 질 3.18 ± 0.35 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영역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근무기관, 교육정도, 경제적 상태, 사회적 지지 영역에서는 연령, 근무기관, 근무형태, 직무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경제적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삶의 질 하부 영역 별로는 신체적 건강영역에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 심리적 건강영역에서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그룹과 연봉 3000만원이상 집단, 사회적 관계영역에서는 대학원 졸업 그룹, 환경 영역에서는 30~34세 그룹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이, 대학원 졸업 그룹이, 3000~3900만원 그룹, 전반적 삶의 질 영역에서는 주 5일 근무하는 그룹이 삶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부적절한 보상과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 중심어 : | 삶의 질 | 직무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 치과위생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quality of life of 151 dental hygienists. Average score were job stress 2.84 ± 0.60 , social support 3.97 ± 0.52 and quality of life 3.18 ± 0.35 . In terms of the quality of life, there were significant gaps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the type of workplace,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In social support significant difference were found according to age, the type of workplace and work system. In job stress, economic status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to that. Among the sub-factors of the quality of life, the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in public dental clinics led a life of higher quality than those who worked in hospitals in term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In terms of social relationships, the dental hygienists who received graduate-school education led a life of better quality than the college graduates. In terms of environments, the 30-34 age group led a life of better quality than the 25-29 age group, and those who worked in public dental clinics led a life of better quality than the others. Those who received graduate-school education led a life of better quality than the junior-college graduates and the college graduates, and the group whose annual income was between 30 and 39 million won led a life of higher quality than the others. In terms of the overall quality of life, the group that worked for five days a week was ahead of the other that worked for five days a week. As a result of analyzing what factors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emotional support, material support were identified as the variables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at.

■ keyword : | Quality of Life | Job Stress | Social Support | Dental Hygienist |

I. 서론

현대 사회는 교육수준 향상,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 자녀양육 기간의 단축과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적 여유로움을 위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국민의 경제생활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보건진료 기관이 전문화와 세분화 되면서 질적 또는 양적으로 유능한 인력 또한 요구 하고 있다.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 구강과 관련된 질환과 임플란트 시술과 같은 치아 관련된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구강보건진료의 수요가 늘어나 지역사회주민들의 관심도가 증가됨으로써 대상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는 질적·양적으로 증가되었고, 정부차원의 구강보건정책 전환과 구조조정 등으로 구강보건 서비스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의 양이 증가되고 최신의 서비스 내용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치과위생사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다[1].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과거의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에서부터 오늘날 예방, 교육, 대인관계기술,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인식이 전환되는 등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고 있으며[2],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에서도 복잡한 인간관계나 근무조건 및 치과진료 대상자의 치아 서비스 욕구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가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3].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에게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이다. 여성이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을 고려하여 타 보건의료직과 비교하여 볼 때,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스트레스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보건의료직중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진다.

사회적 지지도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들을 감소시키는데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4][5], 조직 내 사회적 지지도는 업무통제력, 우울증상, 업무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은 사회적 지지도는 높은 업무통제력, 낮은 우울증상, 그리고 높은 업무성취도와 관계가 있다. 즉, 사회적 지지도는 정신적 스트레스증상 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조직의 생산성 관련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전개과정 전반에 걸쳐 근로자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에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6].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량, 부적절한 대우, 스트레스 증상이 낮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근로생활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7].

직업인은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활동하므로 직무의 만족이 낮으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삶의 하위 영역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장생활이라 할 수 있다[8][9].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은 치과 의료기관 경영에 있어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고 치과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국내의 연구로는 2004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의 공중위생국 치과위생사 93명을 대상으로 한 Nunes 등[10]의 연구와 2009년 울산과 경남지역 치과위생사 84명을 대상으로 한 박과 조[11]의 연구가 있다. 타 직종에 비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치과위생사는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도와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치과 의료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한다.

II. 연구방법 및 대상

1. 연구대상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D광역시 일부 치과위생사들을 편의 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하여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151명의 자료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일반적 특성, 직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삶의 질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2005년에 개발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을 사용하였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항목은 직무요구 요인 4문항, 직무자율 요인 4문항, 관계 갈등 요인 3문항, 직무불안정 요인 2문항, 조직체계 요인 4문항, 부적절 보상 요인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무 스트레스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각 영역별로 Cronbach's α 는 .64~.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5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희(2008)에 의해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별 항목은 정보적 지지 7문항, 정서적지지 9문항, 물질적 지지 2문항, 평가적 지지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정희(2008)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4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민성길(2000) 등이 개발한 척도로 신체적 건강영역 7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사회적 관계 영역 3문항, 생활환경 영역 8문항 등 4개 영역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의 점수는 '전혀 아니가'를 1점으로, '약간 그렇다'를 2점, '그렇다'는 3점, '많이 그렇다'는 4점, '매우 많이 그렇다'는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역문항에서는 역환산하였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민성길(2000)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2로 나타났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하위영

역간),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는 t-test와 일원분산 분석(ANOVA)와 Scheffe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상태, 근무기관, 근무형태, 경력, 교육정도 및 경제적 상태를 조사하였다[표 1]. 대상자의 연령은 20~24세 54명(35.8%), 25~29세 51명(33.8%)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20대로 나타났다. 근무기관은 의원 101명(66.9%), 병원 43명(28.5%)로 나타났고, 근무형태로는 주 6일 근무형태가 88명(58.3%), 주 5일 근무 60명(39.7%)로 나타났다. 경력으로는 9년 이상 36명(23.8%), 1~3년 35명(23.2%), 3~5년 31명(20.5%)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78.1%가 전문학사졸업을 하였으며 연봉2000천만원 이하가 67명(44.4%), 2000~2900만원 66명(43.7%)으로 나타났다 [표 1].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은 [표 2]와 같다. 삶의 질 영역에서 연령($F=3.968, p=.004$), 결혼상태($t=2.156, p=.033$), 근무기관($F=3.755, p=.012$), 교육정도($F=3.570, p=.016$), 경제적 상태($F=4.578, p=.004$)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결과 25~29세 그룹보다 30~34세 그룹이, 의원과 병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이, 전문학사졸업과 학사졸업 그룹보다 대학원 졸업그룹이, 연봉 2900만원이하 그룹보다 3000만원이상 그룹이 삶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영역에서 연령($F=4.191, p=.000$), 근무기관($F=3.388, p=.020$), 근무형태($F=2.745, p=.04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결과 25~29세 그룹보다 30~34세 그룹이, 의원과 병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n(%)
연령	20~24	54(35.8)
	25~29	51(33.8)
	30~34	28(18.5)
	35~39	7(4.6)
	40세 이상	11(7.3)
결혼상태	미혼	113(74.8)
	기혼	38(25.2)
근무기관	의원	101(66.9)
	병원	43(28.5)
	대학병원	1(0.7)
근무형태	보건소	6(4.0)
	2교대	2(1.3)
	3교대	1(0.7)
	주 5일 근무	60(39.7)
경력	주 6일 근무	88(58.3)
	1년 이하	15(9.9)
	1년~3년	35(23.2)
	3년~5년	31(20.5)
	5년~7년	16(10.6)
교육정도	7년~9년	18(11.9)
	9년 이상	36(23.8)
	전문학사 졸업	118(78.1)
	학사 졸업	12(7.9)
경제적 상태 (연봉/만원)	대학원 과정	8(5.3)
	대학원 졸업	13(8.6)
	2000이하	67(44.4)
	2000~2900	66(43.7)
	3000~3900	13(8.6)
	4000이상	5(3.3)

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이, 주6일 근무하는 그룹보다 주 5일 근무하는 그룹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영역에서 경제적 상태(F=9.053, p=.000)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결과 연봉 3900만원이하 그룹보다 4000만원이상 그룹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대상자의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표 3]에 기술되어있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84±0.60점, 사회적 지지 3.97±0.52점, 삶의 질 3.18±0.35점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조직체계 요인 3.00±0.87점, 부적절한 보상 2.99±0.88점, 직무 자율 요인 2.92±0.81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무 스트레스 평균점수보다 낮은 것은 관계갈등 요인 2.73±0.95점과 직무불안정 요인 2.41±0.91점이다. 사회적 지지 하부 영역 중 정서적 지지 3.97±0.63점, 정보적 지지 3.91±0.56점, 물질적 지지 3.25±0.27점, 평가적 지

표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

특성	구분	n(%)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		
			mean±sd	F 또는 t(p)	Scheffe test	mean±sd	F 또는 t(p)	Scheffe test	mean±sd	F 또는 t(p)	Scheffe test
연령	20~24 ^a	54(35.8)	3.15±0.29	3.968 (.004)	b (c)	3.96±0.43	4.191 (.000)	b (c)	2.82±0.58	1.134 (.343)	
	25~29 ^b	51(33.8)	3.07±0.31			3.83±0.43			2.73±0.52		
	30~34 ^c	28(18.5)	3.34±0.39			4.19±0.44			2.93±0.54		
	35~39 ^d	7(4.6)	3.19±0.36			3.68±1.02			2.95±1.04		
	40세 이상 ^e	11(7.3)	3.36±0.44			4.29±0.72			3.10±0.83		
결혼상태	미혼	113(74.8)	3.14±0.32	2.156 (.033)	3.95±0.44	0.918 (.360)	2.82±0.56	0.713 (.477)			
	기혼	38(25.2)	3.28±0.41	4.04±0.69	2.90±0.72						
근무기관	의원 ^a	101(66.9)	3.17±0.35	3.755 (.012)	a, b (c)	3.93±0.49	3.388 (.020)	a, b (c)	2.79±0.51		
	병원 ^b	43(28.5)	3.12±0.31			3.97±0.55			2.90±0.72		
	대학병원 ^c	1(0.7)	3.77±0.00			4.92±0.00			2.76±0.00		
근무형태	보건소 ^c	6(4.0)	3.54±0.33	1.685 (.173)	a, b (c)	4.47±0.33	2.745 (.045)	b) c	3.24±0.97		
	2교대 ^a	2(1.3)	3.38±0.44			3.96±0.18			2.33±0.27		
	3교대 ^b	1(0.7)	3.04±0.00			4.50±0.00			2.33±0.00		
	주 5일 근무 ^b	60(39.7)	3.24±0.32			4.10±0.57			2.91±0.71		
경력	주 6일 근무 ^c	88(58.3)	3.13±0.36	1.990 (.082)	a, b (c)	3.87±0.46	0.921 (.469)	a, b (c)	2.80±0.52		
	1년이하	15(9.9)	3.11±0.24			4.00±0.35			2.91±0.33		
	1년~3년	35(23.2)	3.15±0.32			3.95±0.44			2.77±0.65		
	3년~5년	31(20.5)	3.09±0.31			3.94±0.41			2.72±0.57		
	5년~7년	16(10.6)	3.11±0.40			3.78±0.58			2.77±0.59		
교육정도	7년~9년	18(11.9)	3.19±0.32	3.570 (.016)	a, b (d)	3.93±0.51	1.156 (.329)	a, b (c)	2.80±0.34		
	9년 이상	36(23.8)	3.32±0.40			4.10±0.68			3.02±0.75		
	전문학사 졸업 ^a	118(78.1)	3.15±0.32			3.94±0.43			2.80±0.57		
	학사 졸업 ^b	12(7.9)	3.10±0.28			4.19±0.84			2.73±0.64		
경제적 상태 (연봉/만원)	대학원 과정 ^c	8(5.3)	3.26±0.51	4.578 (.004)	a, b (c)	4.10±0.73	0.911 (.437)	a, c (d)	3.11±0.79		
	대학원 졸업 ^d	13(8.6)	3.45±0.42			4.19±0.71			3.14±0.70		
	2000이하	67(44.4)	3.15±0.32			3.99±0.42			2.75±0.52		
	2000~2900 ^b	66(43.7)	3.13±0.36			3.91±0.48			2.78±0.56		
	3000~3900 ^c	13(8.6)	3.43±0.30	4.578 (.004)	a, b (c)	4.14±0.86	0.911 (.437)	a, c (d)	3.12±0.69		
	4000이상 ^d	5(3.3)	3.49±0.24			4.07±0.98			3.99±0.73		

* p-value determined by t-test or one-way ANOVA at α=0.05

a,b,c,d: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at α=0.05 significance level

지 3.22±0.60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하부영역에서 사회적 관계 3.39±0.44점, 전반적 3.30±0.58점, 심리적 건강 3.22±0.47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삶의 질 평균보다 낮은 항목을 신체적 건강 3.01±0.44점, 환경 3.17±0.46점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 정도

특성	구분	Mean±SD	최소값	최대값
스트레스	직무요구 요인	2.87±0.79	1.00	5.00
	직무자율 요인	2.92±0.81	1.00	5.00
	관계갈등 요인	2.73±0.95	1.00	5.00
	직무불안정 요인	2.41±0.91	1.00	5.00
	조직체계 요인	3.00±0.87	1.00	5.00
	직장문화 요인	2.89±0.65	1.25	4.50
	부적절한 보상	2.99±0.88	1.00	5.00
	전체	2.84±0.60	1.43	4.48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97±0.63	2.00	5.00
	정보적 지지	3.91±0.56	2.00	5.00
	물질적 지지	3.25±0.27	1.00	5.00
	평가적 지지	3.22±0.60	1.75	5.00
	전체	3.37±0.52	1.92	5.00
삶의 질	신체적 건강	3.01±0.44	2.14	4.29
	심리적 건강	3.22±0.47	2.33	4.33
	사회적 관계	3.39±0.44	2.33	4.67
	환경	3.17±0.46	1.88	4.50
	전반적	3.30±0.58	2.00	4.50
	전체	3.18±0.35	2.46	4.27

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하부 영역간의 관계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하부 영역은 [표 4]와 같다. 신체적 건강영역에서 근무기간이 유의하게 그룹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631, p=.042) 사후검정결과 병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건강영역에서 근무기관(F=3.032, p=.031)과 경제적 상태(F=3.588, p=.015)가 유의하게 그룹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결과 의원과 병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그룹과 연봉 3000만원이하 집단보다 3000만원이상 집단의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에서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그룹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960, p=.034), 사후검정결과 학사졸업그룹보다 대학원 졸업 그룹에서 사회적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영역에서 결혼상태(F=2.526, p=.013), 연령(F=4.526, p=.002), 근무기관(F=2.597, p=.045), 교육수준(F=4.980, p=.003), 경제적

표 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하위 영역간의 관련성

특성	구분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mean±sd	F또는 t(p*)	Scheffe test	mean ±sd	F또는 t(p*)	Scheffe test	mean±sd	F또는 t(p*)	Scheffe test
결혼 상태	미혼	2.99±0.43	1.278		3.20±0.45	1.047		3.37±0.40	0.858	
	기혼	3.09±0.45	(.203)		3.29±0.53	(.297)		3.44±0.51	(.392)	
연령	20~24 ^a	2.96±0.43			3.20±0.44			3.45±0.38		
	25~29 ^b	2.97±0.43			3.11±0.42			3.24±0.39		
	30~34 ^c	3.12±0.42	1.235		3.38±0.53	2.219		3.48±0.54	2.241	
	35~39 ^d	3.08±0.31	(.299)		3.19±0.52	(.070)		3.43±0.57	(.067)	
	40세이상 ^e	3.18±0.58			3.45±0.51			3.48±0.38		
근무 기관	의원 ^a	3.02±0.39			3.23±0.48			3.39±0.45		
	병원 ^b	2.93±0.46	2.631		3.13±0.41	3.032		3.35±0.39	0.295	
	대학병원 ^c	3.57±0.00	(.042)	b <c	3.83±0.00	(.031)	a, b <c	3.67±0.00	(.829)	
근무 형태	보건의료 ^a	3.38±0.67			3.67±0.37			3.44±0.46		
	2교대 ^b	3.07±0.30			3.08±0.59			4.00±0.00		
	3교대 ^c	3.00±0.00	1.411		2.83±0.00	0.343		3.33±0.00	1.637	
	주 5일 근무 ^b	3.10±0.45	(.242)		3.24±0.45	(.794)		3.42±0.42	(.183)	
경력	주 6일 근무 ^c	2.95±0.43			3.21±0.48			3.35±0.44		
	1년이하	2.85±0.44			3.16±0.38			3.38±0.49		
	1년~3년	2.99±0.44			3.18±0.40			3.42±0.40		
	3년~5년	2.94±0.40	1.326		3.16±0.51	0.993		3.39±0.35	1.186	
	5년~7년	2.99±0.47	(.256)		3.17±0.47	(.424)		3.25±0.50	(.319)	
	7년~9년	3.13±0.40			3.20±0.48			3.24±0.34		
교육 수준	9년 이상	3.12±0.46			3.37±0.52			3.49±0.51		
	전문학사 졸업 ^a	2.99±0.43			3.20±0.44			3.38±0.40		
	학사 졸업 ^b	3.07±0.44	1.356		3.11±0.45	1.717		3.17±0.48	2.960	
	대학원 과정 ^c	2.96±0.44	(.259)		3.35±0.69	(.166)		3.38±0.63	(.034)	b <d
경제적상태(연봉/만원)	대학원 졸업 ^c	3.23±0.51			3.46±0.51			3.67±0.49		
	2000이하 ^a	2.97±0.39			3.19±0.46			3.42±0.41		
	2000 ~2900 ^b	2.99±0.45	1.960		3.17±0.47	3.588		3.31±0.44	1.530	
	3000 ~3900 ^c	3.21±0.47	(.123)		3.47±0.44	(.015)	a,b <c,d	3.56±0.55	(.209)	
	4000이상 ^d	3.31±0.48			3.70±0.30			3.40±0.15		

* p-value determined by t-test or one-way ANOVA at $\alpha = 0.05$

a,b,c,d: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at $\alpha = 0.05$ significance level

표 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하위 영역간의 관련성[계속]

특성	구분	환경			전반적		
		mean±sd	F또는 t(p*)	Scheffe test	mean±sd	F또는 t(p*)	Scheffe test
결혼 상태	미혼	3.12±0.42	2.526		3.25±0.57	1.973	
	기혼	3.33±0.52	(.013)		3.46±0.59	(.050)	
	20~24 ^a	3.13±0.41			3.32±0.56		
연령	25~29 ^b	3.04±0.40	4.526	b < c	3.13±0.55	2.267	2.267 (.065)
	30~34 ^c	3.45±0.48	(.002)		3.43±0.57		
	35~39 ^d	3.13±0.45			3.50±0.50		
	40세이상 ^e	3.34±0.59			3.55±0.76		
근무 기관	의원 ^a	3.15±0.48			3.27±0.60		
	병원 ^b	3.16±0.38	2.597	a, b < c	3.29±0.51	1.795	1.795 (.151)
	대학병원	3.88±0.00	(.045)		4.00±0.00		
	보건소 ^c	3.58±0.29			3.75±0.52		
2교대 ^b	3.56±0.62		3.75±0.35				
근무 형태	3교대	2.88±0.00	1.804		4.00±0.00	3.326	b) c
	주 5일 근무 ^b	3.25±0.45	(.149)	3.44±0.63	3.326 (.021)		
	주 6일 근무 ^c	3.11±0.45		3.19±0.52			
	1년이하	3.15±0.29		3.33±0.50			
경력	1년~3년	3.12±0.44			3.36±0.60		
	3년~5년	3.05±0.43	2.208		3.15±0.58	1.095	
	5년~7년	3.08±0.53	(.057)		3.22±0.52	(.366)	
	7년~9년	3.19±0.34			3.22±0.62		
	9년 이상	3.38±0.52			3.44±0.61		
교육 수준	전문학사 졸업 ^a	3.13±0.42			3.29±0.57		
	학사 졸업 ^b	3.04±0.37	4.980	a, b < d	3.25±0.72	0.283	0.283 (.837)
	대학원 과정 ^c	3.38±0.60	(.003)		3.44±0.68		
	대학원 졸업 ^d	3.58±0.54			3.38±0.51		
20000이하 ^a	3.13±0.46		3.30±0.57				
경제적상태 (연봉/만원)	2000 ~2900 ^b	3.12±0.44	4.245	b < c	3.24±0.58	1.511	1.511 (.214)
	3000 ~3900 ^c	3.50±0.36	(.007)		3.62±0.58		
	4000이상 ^d	3.58±0.37			3.30±0.57		

* p-value determined by t-test or one-way ANOVA at $\alpha=0.05$

a,b,c,d: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at $\alpha=0.05$ significance level

상태(F=4.245, p=.007)가 유의하게 그룹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25~29세 그룹보다 30~34세 그룹이, 병원과 의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이, 전문학사 졸업그룹과 학사졸업 그룹보다 대학원 졸업 그룹이, 연봉 2000~29000만원 그룹보다 3000~3900만원 그룹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삶의 질 영역에서 근무형태가 유의하게 그룹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326, p=.021) 사후검정결과 주 5일 근무하는 그룹이 주 6일 근무하는 그룹보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직무요구 요인 외 9개 전체 변수의 26.7%로 설명하고, 부적절한 보상 ($\beta=.230, p < .05$), 정서적 지지($\beta=.332, p < .001$), 물질적 지지($\beta=.142, p < .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5].

표 5.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B	S.E	β	t	R ²	F
상수	1.876	.234		8.020		
직무요구 요인	.018	.044	.040	.403		
직무자율 요인	.007	.045	.017	.161		
관계갈등 요인	.046	.039	.127	1.192		
직무불안정 요인	.007	.041	.019	.174		
조직체계 요인	.034	.049	.086	.703	.267	3.846**
직장문화 요인	.014	.046	.027	.315		
부적절한 보상	.091	.036	.230	2.511*		
정서적 지지	.183	.056	.332	3.257**		
정보적 지지	.011	.068	.018	.160		
물질적 지지	.075	.059	.142	1.257*		
평가적 지지	.035	.064	.060	.546		

* p < 0.05, ** p < 0.001

IV. 고 찰

본 연구에서 삶의 질 영역에서는 연령(F=3.968, p=.004), 결혼상태(t=2.156, p=.033), 근무기관(F=3.755, p=.012), 교육정도(F=3.570, p=.016), 경제적 상태(F=4.578, p=.004)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25~29세 그룹보다 30~34세 그룹이, 의원과 병원

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이, 전문 학사졸업과 학사졸업 그룹보다 대학원 졸업그룹이, 연봉 2900만원이하 그룹보다 3000만원이상 그룹이 삶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김[12]의 연구에 의하면 삶의 질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p=.0035$), 학력이 높을수록($p=.0111$), 미혼보다는 기혼($p=.00016$)이, 경력이 많을수록($p=.0014$)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민 등[13]의 연구에서 월급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 100만원이하가 3.22점으로 100~200만원 이하 2.94점과 200만원이상 2.97점보다 높아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이는 저소득자의 경우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고소득자인 경우 이 영향력이 낮아 삶의 질 만족을 좌우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박[15]의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종교, 결혼상태, 사회적 상태의 변인에 따라 사회적 지지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연령($F=4.191$, $p=.000$), 근무기관($F=3.388$, $p=.020$), 근무형태($F=2.745$, $p=.04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결과 25~29세 그룹보다 30~34세 그룹이, 의원과 병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이, 주6일 근무하는 그룹보다 주 5일 근무하는 그룹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15]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연령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결혼상태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추[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직접 지지도는 보건소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에서는 경제적 상태($F=9.053$, $p=.000$)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결과 연봉 3900만원이하 그룹보다 4000만원이상 그룹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등[17]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알아본 결과, 부적절한 대우요인에서는 100만원미만은 3.56점이었고, 190만원이상에서는 2.96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지만, 직무스트레스 각 영역별로는 부적절한 대우요인이 3.34점으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

였다. 영역별로 구체적인 스트레스 내용 중 타 의료기사에 비해 보수가 부적절하다가 3.72점으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요인으로 나타났고,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적을 때 스트레스가 있다 3.30점으로 전체 직무스트레스 2.28점보다 높아 스트레스 요인에 보수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김[1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직무 자율성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일평균 근무시간이 길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보상과 급여체계를 구축하여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평균 직무 스트레스는 2.84 ± 0.60 점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부하직원과의 갈등 3.00 ± 0.87 점, 부적절한 보상 2.99 ± 0.88 점, 역할 갈등 2.92 ± 0.81 점으로 전체 직무 스트레스 평균보다 높았다. 이 등[17]의 2.82점, 권과 정[19]의 2.82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간정도의 직무 스트레스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97 ± 0.52 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하부 영역 중 정서적 지지 3.97 ± 0.63 점, 정보적 지지 3.91 ± 0.56 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추[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도가 2.59 ± 0.52 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사회적 지지도를 보였으며,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정[2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도는 4점 중 2.79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사회적 지지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적 지지에 대한 항목의 점수가 높은 것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관련하여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물질적 지지가 가장 낮게 인식되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 때문이며, 인적·물질적 자원을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삶의 질의 평균은 3.18 ± 0.35 점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 하부영역에서 사회적 관계 3.39 ± 0.44 점, 전반적 3.30 ± 0.58 점, 심리적 건강 3.22 ± 0.47 점으로 전체 삶의 질 평균보다 높았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김[12]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

만족도가 3.1 ± 0.4 로 비슷한 점수로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정[21]의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하였다.

삶의 질 하부 영역 중 신체적 건강영역에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한 민[13]등의 연구에서는 신체영역에서 기타 부서가 교정부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근무기관이나 부서 등 장소에 따라 신체영역의 삶의 질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ndrades Barrientos와 Valenzuela Suazo[22]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간호사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에서 연령과 신체적 영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건강영역에서는 의원과 병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그룹과 연봉 3000만원이하 집단보다 3000만원이상 집단의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한 민[13]등의 연구에서는 심리 건강영역에서도 기타부서가 교정부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근무기관이나 부서 등 장소에 따라 심리 건강영역의 삶의 질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23]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관계영역에서는 학사 졸업 그룹보다 대학원 졸업 그룹에서 사회적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2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역에서 대학교 이상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보다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박과 조[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영역에서 월수입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 영역에서 25~29세 그룹보다 30~34세 그룹이, 병원과 의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이, 전문학사 졸업그룹과 학사졸업 그룹보다 대학원 졸업 그룹이, 연봉 2000~29000만원 그룹보다 3000~3900만원 그룹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과 조[11]의 연구에서는 환경 영역에서 연령과 결혼 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월 수입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

에서만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민[13]의 연구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다. 김[12]의 연구에서도 대학원졸 이상 군에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삶의 질 영역에서 주 5일 근무하는 그룹이 주 6일 근무하는 그룹보다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주 5일 근무하는 그룹이 주 6일 근무하는 그룹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주 5일제를 실시함으로써 여가생활을 통한 사회적 지지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향상된 삶을 살고 있다고 대상자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민[13]의 연구에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월수입, 박과 조[11]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결혼 상태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부적절한 보상($\beta=.230, p < .05$)과 정서적 지지($\beta=.332, p < .001$), 물질적 지지($\beta=.142, p < .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 등[24]의 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는 근무형태, 조직적 관리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로 나타나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때 삶의 질 수준이 낮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Stansfeld와 Candyd[25]연구에 의하면 사회·심리적 환경과 정신건강간의 관련성에 있어 높은 직무긴장, 낮은 직무자율권, 낮은 사회적 지지, 높은 정신적 요구, 직무 불안정, 보상부적절 등이 정신 건강과 관련성이 있고, 특히 직무긴장과 보상부적절이 정신건강과 가장 관련성이 있었다. 이과 김[26]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의사소통, 업무요구량, 자율성, 조직의 합리성, 장래성에 따라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직을 낮추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적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넓혀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치과위생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D광역시 일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삶의 질에서는 연령($F=3.968, p=.004$), 결혼상태($t=2.156, p=.033$), 근무기관($F=3.755, p=.012$), 교육정도($F=3.570, p=.016$), 경제적 상태($F=4.578, p=.004$), 사회적지지에서는 연령($F=4.191, p=.000$), 근무기관($F=3.388, p=.020$), 근무형태($F=2.745, p=.045$), 직무 스트레스에서는 경제적 상태($F=9.053, p=.000$)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평균 직무 스트레스는 2.84 ± 0.60 점, 사회적 지지 3.97 ± 0.52 점, 삶의 질 3.18 ± 0.35 점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조직체계 요인 3.00 ± 0.87 점, 부적절한 보상 2.99 ± 0.88 점, 직무자율 요인 2.92 ± 0.81 점으로 전체 직무 스트레스 평균보다 높았다. 사회적 지지 하부 영역 중 정서적 지지 3.97 ± 0.63 점, 정보적 지지 3.91 ± 0.56 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하부영역에서 사회적 관계 3.39 ± 0.44 점, 전반적 3.30 ± 0.58 점, 심리적 건강 3.22 ± 0.47 점으로 전체 삶의 질 평균보다 높았다.

삶의 질 하부 영역별로는 신체적 건강영역에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 심리적 건강영역에서는 의원과 병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그룹, 연봉 2900만원이하 집단보다 3000만원이상 집단, 사회적 관계영역에서는 학사졸업그룹보다 대학원 졸업 그룹, 환경 영역에서는 25~29세 그룹보다 30~34세 그룹이, 병원과 의원에 근무하는 그룹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룹이, 전문학사 졸업그룹과 학사졸업 그룹보다 대학원 졸업 그룹이, 연봉 2000~2900만원 그룹보다 3000~3900만원 그룹, 전반적 삶의 질 영역에서는 주 6일 근무하는 그룹보다 주 5일 근무하는 그룹이 삶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직무요구 요인 외 9개 전체 변수의 26.7%로 설명하고, 부적절한 보상($\beta=.230, p < .05$), 정서적 지지($\beta=.332, p < .001$), 물질

적($\beta=.142, p < .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임의 편의추출 되었으므로 전체 치과위생사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연구 변수와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남용옥, 나운숙, “보건소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25-149, 2000.
- [2] 강부월, 조직몰입도 인과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3] 장계원, “임상 치과위생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진주간호보건대학 논문집, 제20권, 제1호, pp.79-95, 1997.
- [4] J. S. House,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81.
- [5] S. Cohen and T. A. Wills, “Stree,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ysical disease,”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Vol.98, pp.310-57, 1985.
- [6] 박경옥,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도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제20권, 제3호, pp.91-108, 2003.
- [7] 오혜승,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가 근로생활의 질(QWL)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8] 이순목, “직업 생활의 질과 삶의 질 : 종합모형의 탐색”, 사회과학, 제36권, 제2호, pp.107-131, 1997.
- [9] 탁진국, “직종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원과 직무스트레스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제7권, 제1호, pp.125-41, 2002.
- [10] M. FNunes, M. C. Freire, and C. R. Leles,

“Quality of life of public health service dental hygienists in Goiânia, Brazil,” *Int J Dent Hyg*, Vol.6, No.1, pp.19-24, 2008.

[11] 박지혜, 조미숙,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들의 삶의 질과 직업만족도”,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34권, 제1호, pp.63-71, 2009.

[12] 김연선, *치과위생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및 삶의 질과의 연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3] 민경진, 고영주, 차춘근, “치과기공사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련성”,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제21권, 제1호, pp.217-242, 2004.

[14] 이현송, “소득이 주관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23권, 제1호, pp.91-117, 2000.

[15]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16] 추원지, *보건간호사의 사회적 지지도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7] 이현옥, 주운주, 김영임, “J지역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분석”, *치위생과학회지*, 제7권, 제2호, pp.65-72, 2007.

[18] 이정화, 김지화, “일부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 대구지역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00-408, 2012.

[19] 권미영, 정미희,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 정도와 적응 방법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제4권, 제3호, pp.133-140, 2004.

[20] 정미희, *치과위생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1] 정은경, *병원 근로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2] L. Andrades Barrientos and S. Valenzuela Suazo, “Quality of life associated factors in Chileans hospitals nurses,” *Rev Lat Am Enfermagem*, Vol.5, No.3, pp.480-486, 2007.

[23] 이종렬, *WHOQOL-BREF를 이용한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 계명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9.

[24] 전은숙, 이강숙, 이선영, 유재희, 홍아름, “병원근로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 *대한산업의학회지*, 제21권, 제1호, pp.28-37, 2009.

[25] S. Stansfeld and B. Candyd,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meta-analytic review,” *Scand J work Environ Health*, Vol.6, special issue, pp.442-462, 2006.

[26] 이병호, 김정술, “치과위생사의 소진과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 pp.217-227, 2010.

저 자 소 개

김 혜 진(Hye-Jin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공중보건학과 박사졸업
 - 2005년 3월 ~ 2009년 12월 : 대구과학대학 치위생과 전임강사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노인구강보건, 예방치학

정 애 화(Ae-Hwa Jaung)

정회원



- 2006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
- 2003년 3월 ~ 2009년 12월 : 대구과학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기본간호, 노인간호, 간호교육

김 지 희(Ji-Hee Kim)

정회원



- 2008년 8월 : 영남대학교 보건학
과보건학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
대학교 치위생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 치위생학, 보건학, 예방치학